성장 과정

<스케줄이라는 자전거로 계속 나아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여러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것은 힘들었지만, 투자를 해주신 부모님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규칙적으로 살아온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 스스로 아침 6시 30분에 기상 후 자정까지의 기본 스케줄을 만들고,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스케줄에 포함하여 매일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최근에 국비 훈련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같이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였고, 훈련 종료 시기에는 전체 성적 2위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가짐이 하나의 삶이 되어 지금의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강동욱’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한다>.

저는 주어진 목표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여 해결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성격으로 인해 “시킨 일 하나는 정말 잘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완료하는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 프로젝트에서 강의 상세 페이지를 맡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정보와 가격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완성도 있는 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웹 디자인부터 팀원들의 피드백을 받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각 기능들이 개발될 때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사하고, 이후 프런트와 연결하여 요청하는 데이터가 잘 주고받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넣으려 했던 기능은 전부 구현할 수 있었고, 제가 맡았던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개발자로서의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개발에 임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이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점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조급함을 부여한다 생각되어 부담감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편하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의 발걸음>

제가 지원하는 백엔드 개발 업무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개발 능력과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백엔드 개발자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능들이 매끄럽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엔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Restful API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개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많은 이용자로 인한 랙이 걸리는 현상이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 업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의 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 안정적이고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적응하여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